



# 컬러닝~ 출발은 알프스 놀이기구였다네

(봅슬레이 소재 영화)



봅슬레이는 19세기 알프스산맥에서 사람과 짐을 나르던 썰매가 경주용으로 변형돼 경기로 발전했다. 겨울올림픽 종목은 이처럼 생활수단과 놀이에서 스포츠로 탈바꿈한 것이 많다. 20세기 초 나무썰매(작은 사진)와 현대식 봅슬레이 경기 장면. [중앙포토]

## sochi 2014 D-4

### 얼음 위의 체스, 컬링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 쳐내던 민속놀이

### 호텔 주인이 아빠, 봅슬레이 스위스서 손님 끌려고 썰매 타는 트랙 만들어

### 썰매가 뼈 닮았네, 스켈레톤 인디언 짐 썰매서 시작 위험해서 중단되기도

### 나무썰매가 어원, 루지 스켈레톤과 뿌리 같아 올림픽 썰매 종목 막내

### 군인들의 게임, 바이애슬론 18세기 노르웨이·스웨덴 국경수비대 경기가 모태

### 겨울에 만난 너, 출생의 비밀

겨울올림픽에서 한국의 전통적 효자 종목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첫 금을 수확한 쇼트트랙이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는 컬링·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바이애슬론 등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에서도 메달 사냥에 도전장을 던진다. 점점 친근해지고 있는 이들 종목의 뿌리와 경기방식 및 출전선수를 소개한다. 한국은 8일 새벽(한국시간) 개막하는 소치 겨울올림픽에 71명의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얼음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두뇌 게임이다. 16세기 이전부터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등에서 즐긴 민속놀이였다. 겨울철 강이 얼면 반질반질한 돌을 가져다가 밀어 넣고 쳐내는 놀이를 한 것에서 유래했다. 네덜란드 소작농이 컬링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15세기 중반의 그림도 있다. 1620년 스코틀랜드의 시인 헨리 애덤스의 시집 서문에 ‘컬링’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컬(curl)’이란 스코틀랜드어에서 이름이 생겼다.

컬링이 스포츠로 발전한 것은 19세기부터다. 캐나다로 이주한 스코틀랜드인들이 1807년 몬트리올에서 컬링 클럽을 만들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컬링 역사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은 경기도청 여자팀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2012년 세계선수권 4강에 오른 대표팀은 메달을 노리고 있다.

#### ◆한국 주요 경기 일정

- ▶한국-일본(11일 오후 2시, 신미성·김지선·이슬비·김근지·염민지)
- ▶한국-스위스(12일 0시)
- ▶한국-스웨덴(12일 오후 7시)
- ▶한국-러시아(14일 0시)
- ▶한국-중국(14일 오후 7시)
- ▶한국-영국(15일 오후 2시)
- ▶한국-덴마크(16일 오후 7시)
- ▶한국-미국(17일 오후 2시)

스위스 생모리츠의 호텔 경영자 카스과 바드루트는 19세기 후반 겨울철 손님 유치용을 위한 묘안을 짜냈다. 한 영국인이 얼어붙은 도로와 눈 위에서 종이인형의 썰매를 타고 노는 것에 착안해 트랙을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이동수단으로 쓰던 나무 썰매에 철제 날을 장착한 것이 봅슬레이의 원형이 됐다. 끄뎀거리는 뜻의 밥(bob)과 썰매(sled)가 합쳐져 종목 이름이 됐다.

1914년 처음으로 국제 대회가 열렸고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겨울올림픽에서 4인승 경기가 추가됐다. 4인승은 푸시맨 2명과 1명의 브레이크맨, 그리고 핸들을 조종하는 파일럿 1명이 탄다. 2인승은 브레이크맨과 파일럿만 탄다. 파일럿은 도로레로 연결된 조종간을 이용해 커브를 돌 때 미세하게 썰매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은 2인승과 4인승에 2팀씩 출전한다.

#### ◆한국 주요 경기 일정

- ▶남자 2인승 ▶1차 레이스(17일 오전 1시15분, 원윤중·서영우/김동현·전정란)
- ▶2차 레이스(17일 오전 2시50분)
- ▶여자 2인승 ▶1차 레이스(19일 0시16분, 김선욱·신미화) ▶2차 레이스(19일 오전 1시23분)
- ▶남자 4인승 ▶1차 레이스(23일 오전 1시30분, 원윤중·석영진·전정란·서영우/김동현·김식·김경환·오재환) ▶2차 레이스(23일 오전 3시)

북아메리카 인디언과 유럽인이 겨울에 집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했던 썰매에서 유래했다. 썰매가 사람 뼈대 모양을 닮아 스켈레톤(Skeleton)이란 이름이 붙었다. 스포츠 경기로 발전한 곳은 봅슬레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다. 1882년 다보스와 클로스터스 사이에 코스가 설치됐고, 1884년 생모리츠에서 처음 경기가 열렸다.

스켈레톤은 봅슬레이·루지와 같은 트랙에서 치른다. 남녀 각각 1인승만 있으며 철제 썰매에 앉으려 머리부터 내려간다. 최고 시속 140km 정도로 봅슬레이(100km)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만큼 위험성도 커 올림픽에서 중단됐다가 복귀하기를 거듭했다. 안전을 위해 턱보호대가 부착된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국은 ‘인예’ 윤성빈(20·한국체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윤성빈은 지난달 7일 월드컵보다 한 단계 아래인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기량을 갖고 있다.

#### ◆한국 주요 경기 일정

- ▶남자 ▶1차 레이스(14일 오후 9시30분, 이한산·윤성빈)
- ▶2차 레이스(14일 오후 11시15분)
- ▶3·4차 레이스(15일 오후 1시45분)

‘나무로 만든 썰매’를 뜻하는 프랑수아 ‘뤼지(Luge)’가 어원이다.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 스포츠로 발전했다. 루지는 탄 채 출발해 반듯하게 누워 발부터 내려가는 종목이다. 경기로서도 다소 늦게 자리 잡았다. 1955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고, 57년에 국제루지연맹이 창설돼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으로부터 독립했다. 올림픽에도 썰매종목 중 가장 늦은 64년제야 인스브루크 올림픽에서 채택됐다.

루지는 남녀 1인승과 2인승 경기가 있다. 2인승은 성별이 구분되지 않지만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유리한 썰매종목의 특성상 남자들로 구성된다. 루지 역시 스켈레톤처럼 빠른 속도 탓에 위험한 종목이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그루지아의 노다르 쿠마리타쉬빌리가 훈련 도중 코스를 이탈해 쇠파이프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은 전 종목에 4명이 출전한다.

#### ◆한국 주요 경기 일정

- ▶남자 1인승 ▶1차 레이스(8일 오후 11시30분, 김동현) ▶2차 레이스(9일 오전 1시40분)
- ▶3차 레이스(9일 오후 11시30분)
- ▶여자 1인승 ▶1차 레이스(10일 오후 11시45분, 성은영) ▶2차 레이스(11일 오전 1시35분)
- ▶3차 레이스(11일 오후 11시30분)
- ▶남자 2인승 ▶1차 레이스(12일 오후 1시15분, 조정명·박진웅) ▶2차 레이스(13일 0시45분)
- ▶3차 레이스(14일 오전 1시15분, 김동현·조정명·박진웅·성은영)

그리스어로 ‘2’를 의미하는 점프사 바이(bi)와 ‘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이다. 크로스컨트리의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 사격에서의 집중력과 순발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눈밭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나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에서 양국 국경수비대가 펼친 경기를 모태로 본다. 실제로 1회 샤모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군사 순찰(military patrol)’에서는 6개국의 군인이 참가했다.

이후 바이애슬론이 대중화하면서 1960년 스퀘벨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들은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스키로 달리면서 옆드려좌와 서서와 자세로 사격한다. 표적을 맞지 못하면 총목에 따라 불발 표적 1개당 1분을 추가하거나 벌칙 주료를 돌아야 한다. 한국은 남자부 인이복(30·포천시청)과 여자부 문지희(26·전남체육회)가 참가한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 ◆한국 주요 경기 일정

- ▶남자 10km 스피드(8일 오후 11시30분·이인복)
- ▶여자 7.5km 스피드(8일 오후 11시30분·문지희)
- ▶남자 12.5km 추적(11일 0시·이인복 스피드 60위 이내 시 출전)
- ▶여자 10km 추적(12일 0시·문지희 스피드 60위 이내 시 출전)
- ▶남자 20km 개인(13일 오후 11시·이인복)
- ▶여자 15km 개인(14일 오후 11시·문지희)



1511년에 사용된 컬링 스톤.



20세기 초 봅슬레이의 선수.



루지와 스켈레톤의 모태가 된 나무썰매.



1928년 올림픽에 출전한 독일 군인들.

# “눈밭 달려와 ‘세계의 벽’ 향해 정조준”

바이애슬론 소치 대표 이인복·문지희  
최하위권 벗어나려 초인적인 훈련  
매일 스키로 대관령 10km 올라  
“너무 고돼 인터뷰하다 잠든 적도”

섬표는 없었다.  
지난달 22일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마치고 귀국한 뒤 1일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로 출국하기 전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일요일과 설 연휴에도 훈련장에서 오전 오후 2시간씩 땀을 흘렸다. 아무리 올림픽이 코앞이라고 하지만 입이 튀어나올 법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죠.”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이인복(30·포천시청)과 문지희(26·전남체육회). 이들은 지난해 일찌감치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이은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이다. 스키를 신고 뛰다 사격을 한 뒤 다시 뛴다.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격도 잘해야 한다. 사격 결과에 따라 추가 시간 또는 벌칙 코스를 돌아야만 한다. 바이애슬론은 전통적으로 체격이 큰 북유럽 선수들이 강했다. 체격도 작은 아시아 선수들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인복과 문지희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각각 63위와 66위를 기록했다. 최하위권이다. 문지희는 “올림픽 첫 출전이라 긴장도 많이 했고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소치에서 이들의 목표는

개인 스프린트 경기에서 60위 안에 들어 추적 경기까지 뛰는 것이다. 밴쿠버에서는 스프린트 경기만 뛰었다. 언뜻 보면 목표가 소박하다. 그저 올림픽 출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이들은 성적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인복은 “세계적인 격차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절대 싫다. 세계적인 벽을 뚫기 위해 4년간 힘들게 훈련했다”고 말했다.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훈련은 어떤 종목보다 힘들기로 소문 나 있다. 10km 정도의 강원도 대관령 오르막길을 매일 오른다. 그냥 걷기도 힘든데 스키까지 신고 걷는다. 여름에는 산악자전거를 70~80km 탄다. 신용선 대표팀 감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유럽 선수를 이기기 힘들다.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 도중에 포기하는 선수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문지희는 “앉아서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 잠이 든 적도 있다”며 웃었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에서 훈련과 경기를 치르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인복이 2010년 이후 집에서 잔 날은 6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네 살, 세 살 난 아들을 둔 이인복은 “지난해 9월부터 아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모처럼 집에 가니 아빠를 낯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에도 바이애슬론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당당히 알리고 싶어 한다. 이인복은 “바이애슬론은 종목 특성상 중위권 선수가 1등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1%의 기적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평창=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저희에게는 주말도 없어요.”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이인복(왼쪽)과 문지희가 지난달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내 바이애슬론 훈련장에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계의 벽이 높지만 이들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평창=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